

아일랜드 국제 호스피스 모임에 참석후

노라

춘천 성 골롬반의원 호스피스과장

지 난 유월달에 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 호스피스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1년동안 말기 암 환자들과 같이한 저로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의 고향이기도 한 아일랜드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호스피스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사람들은 역사적인 문재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핵환자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임종말기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했을 때 돌보아 줄 이들이 없었기에 많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실정을 잘 알고 있던 자선수녀회의 수녀님들에 의해 1879년 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아일랜드의 첫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그 당시의 이 시설은 아주 생소한 시설이었지만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국의 성 요셉 호스피스를 이 수녀님들이 설립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모임은 아일랜드에서 처음이었고 모임을 후원한 시설이 바로 이 아일랜드 호스피스 시설입니다. 그 국제 호스피스 모임에 참석한 나라는 구라파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였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이었으며 그 모임을 통하여 참석한 나라들의 호스피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국제모임의 제목은 "BAS SOLAS-Death with Illumination"입니다.

이 말은 곧 "밝은 죽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호스피스의 많은 발전으로 환자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해결되어 가고 있지만 심리적인 고통은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이 모임의 주제이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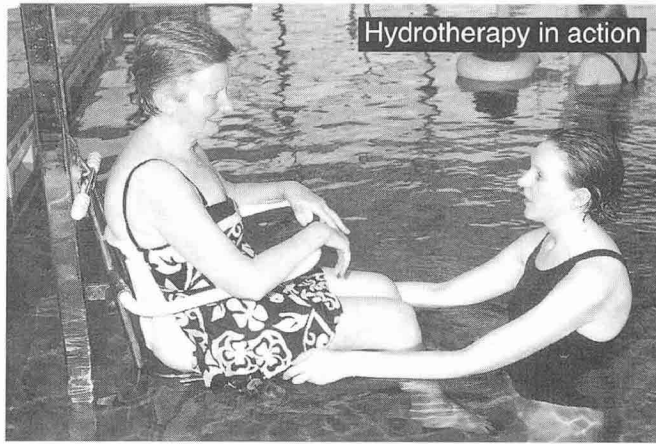


주로 환자들이 겪어왔던 영적인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왔던 생활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모임의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들은 선진국에서 훌륭한 호스피스 전문가들로서 호스피스 활동에서 인정을 받아 정부와 여러 단체에서 경제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일 인상에 남는 강의는 바로 호스피스 종사자들의 강의였으며 그분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환자들과의 시간을 갖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스킵과 대화요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각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그림요법, 음악요법, 수중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호스피스 시설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해준 것은 개였는데 대부분 시설의 환자들이 개와 매우 친숙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환자를 위해서는 모든 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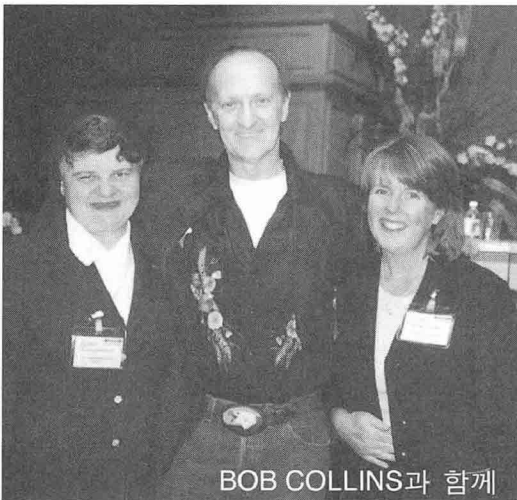
임의 하이라이트는 그 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폐암 말기 환자 Bob collins 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TV Prodecer였는데 이분은 비디오를 통하여 그의 병력과 호스피스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디오를 보여준 후 그분은 직접 나와 우리와 같이 느낀 점을 나누었는데 자신이 호스피스 시설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그중에서 환자용 침대를 치우고 더블침대를 사용하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에게 두 번째 부인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양의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아 동양까지 찾을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종교를 통하여 생활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으며 임종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안정된 분위기와 가족과의 행복,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였기에 아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 이후 Bob이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국제 모임에 참석하면서 후에 아일랜드에 있는 호스피스 시설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세 개는 독립된 호스피스였고, 하나는 병원건물과 연결된 시설이며 또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홍콩에 있는 브



BOB COLLINS과 함께

라드 브리 호스피스를 견학했습니다. 이곳도 아일랜드의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암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의뢰받고 있었으며 독립된 호스피스이지만 가까운 대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그 대학병원의 심리학과, 정신과, 방사선과, 검사실, 물리치료실, 영양사 등 전문의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 의사가 면담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 호스피스 팀의 간호사 한분이 그런 일을 합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는 그 간호사의 보고를 받고 환자를 위한 앞날의 치료방법을 결정합니다. 홍콩의 호스피스를 방문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대학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호스피스 팀에 연락하여 입원 암환자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도움을 주도록 의뢰할 정도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호스피스 시설과 홍콩의 호스피스 시설의 방문을 통하여 몇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시설분위기가 아주 밝고 좋았습니다.

둘째, 환자들의 고통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호스피스 팀은 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혈관주사를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째, 호스피스 기관은 입원시설인 동시에 가정 호스피스와 Day care center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모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은 후 필요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고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을 때 그 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 전문의사에게 의뢰하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면담하고 나서 환자는 가정 호스피스나 Day care center 또는 호스피스 입원시설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최대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그들이 돌보는 암환자와 가족들은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속에 심리적인 죽음의 5단계를 극복하면 편안한 임종을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외국시설을 보고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실정에 맞는 호스피스의 정착화로 소외받고 고통에 시달리는 임종말기 환자를 위하여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좀더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경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통받는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